

고 김민기 1주기…학전 “데뷔 앨범 LP 제작·재단 설립 추진”

아침이슬·그날 등 10곡 수록

학전이 오는 21일 1주기를 맞는 고(故) 김민기 대표의 첫 앨범을 54년 만에 LP로 재발매하고 생전 작업을 기록하는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학전은 김민기의 데뷔 앨범 ‘김민기’를 LP로 복각해 제작·발매하고 연내 ‘학전김민기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1971년 발매된 ‘김민기’는 한국 대중문화에 상징적인 역할을 한 앨범으로 평가받는다. 음반 수록곡은 고인의 대표곡인 ‘아침 이슬’, ‘한국 모던 포크에 변화를 가져온 ‘그날’, ‘꽃 피우는 아이’ 등 10곡으로 구성됐다.

고인이 만 20세에 발매한 이 음반은 발매 직후 판매가 금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발매 이듬해에 김민기가 서울대 문리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민중가요를 가르치다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당국에 의해 음반 잔여분량이 판매 금지됐다. 이후 그



으로 구성된 음반을 한시적으로 판매했다.

학전은 2004년 ‘김민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복원해 CD로 선보인 바 있으나 LP를 정식 재발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앨범 커버는 원본 디자인을 계승하되 동시대 감각에 맞게 재탄생시키고, 고인의 음악 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친필 악보와 메모 등을 함께 실

의 앨범은 수십 배 가격에 암거래되거나 여러 종류의 해적판 LP로 제작됐다.

1987년 ‘아침 이슬’이 해금된 뒤 한 음반사에서 김민기의 허락 없이 건전가요를 담은 복원음반을 발매했다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1990년 양측의 합의로 1971년 당시의 곡 목록

는다.

학전은 복각 LP 발매를 시작으로 김민기와 학전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고인이 일생에 걸쳐 남긴 작품과 작업을 보존하는 학전김민기재단 설립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학전은 고인의 뜻에 따라 공식적인 1주기 추모 행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인을 기억하는 가수과 작가들이 오는 18~20일 서울 강동구 스페이스거북이 소극장에서 콘서트 ‘김민기 뒤폴이’를 별도로 개최한다.

‘김민기 뒤폴이’는 김민기를 존경하는 후배 음악인과 과거 강원도 원주 토지문화관에 입주해 김민기와 인연을 맺었던 문인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이다.

김민기는 지난해 7월 21일 자병으로 별세했다. 김민기는 가수로 활동하며 ‘아침이슬’, ‘상륙곡’ 등의 대표곡을 남겼으며 1991년부터 소극장 학전을 이끌며 김광석, 설경구, 황정민 등의 스타를 배출했다. /연합뉴스



김길표 쌍교숯불갈비 부대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김길표 쌍교숯불갈비 부대표는 지난 7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

전달된 성금은 광산구로 지정기탁돼 광산구 내 저소득층 및 열악한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김길표 부대표는 지난 2021년 5년 내 1억 원의 기부하기로 약정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광주 131회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쌍교숯불갈비 감창희(전남 33호 아너)·송선희(전남 64호 아너) 대표와 함께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사회약자 권익 보호·풀뿌리 운동 앞장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의장 별세



최홍엽(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자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별세했다. 향년 61세.

최 의장은 조선대 법과대학 학장과 법학연구원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대법원 판례조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그는 2008년부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시민사회와 환경운동에 기여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며, 생전에는 광주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를 지원하는 ‘최홍엽 지원금’을 조성해 풀뿌리 운동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최 의장의 빈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8시30분, 장지는 담양전주교 묘역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덕숙 명무,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

승무·살풀이춤 이수자

10일 시상식·축하 공연

금속공작기계 전문기업인 화천그룹이 후원하는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은 8일 제15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무용 부문 수상자로 김덕숙(사진) 명무를 선정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제 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인 김 명무는 광주디딤무용단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9992년 제 18회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수상한 김 명무는 제 4회 장흥전통가무와 제전 대통령상, 제 7회 안도 장보고국악악대전 국악대상을 수상했다. 또 제27회 대한민국 예총예술문화상 국악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제 5호 부여·백제 국악경연대회 무용 부문 지도자상을 받았다.

재단은 2개월간의 공모·추천 및 접수기간을 거쳐 국가무형유산 제27호 승무보유자인 채상묵 심사위원장 등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김덕숙 수상자는 호남춤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오고 있으며, 서암전통문화와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을 계기로 전통무용의 보존과 계승을 통한 호남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할 것이 기대되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김덕숙명무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향후 공연활동에 대한 재단의지속적인후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에서 열리며 김 명무의 ‘살

풀이춤’과 제 9회 수상자 윤소희(거문고), 14회 수상자 김선제(아쟁)씨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2011년 제정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호남지역에서 무용, 공예, 판소리, 한국화, 가악 등 전통문화 5개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이다. 서암문화재단은 고(故) 권승관 화전 장업체장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생전의 애정을 바탕으로 예향에 걸맞는 호남지역 전통문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화전그룹이 2010년 설립했다. 재단은 서암전통문화대상 시상, 인제양성 및 장학사업, 지역민을 위한 국악공연인 서암음악회 및 젊은 예인들에게 무대 제공을 위한 서암작은음악회 등 공연 지원사업, 학술및연구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전남교육청 명예대사에 가수 팝핀현준 위촉

가수 팝핀현준(사진)이 전남도교육청 ‘희망 전남 교육 명예대사’에 위촉됐다.

팝핀현준은 명예대사로서 전남교육 홍보 영상 출연 등 전남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특강 등 교육 기부 활동에 나선다.

그의 배우자인 국악인 박애리씨도 2016년 희망 전남교육 명예대사로 위촉돼 활동하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전남교육의 자긍심과 이미지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데 합



핀현준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위촉식 후팝핀현준은 무안행복중학교 1학년 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춤춰! 행복해진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으며, 오는 18일에는 여수 무선중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차 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5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방판유치 어디든 가요 스페셜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한글용사 아이야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	05 동행(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재)	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45 꼬마캐리 탐구생활	00 테마스페셜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오늘N 스페셜(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라바 패밀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05 터닝메카드 갯(재) 25 특집 2시 뉴스 외전	00 보석이네 건강 수다(재)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동물타비(재) 40 불편해도 괜찮아 7(재) 45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시간여행자 루크(재)	55 기본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Why? 15 다이노 파워즈 4 30 골쟁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일꾼의 탄생 시즌 2	50 여왕의 집	05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00 슈팅스타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30 라디오스타	40 우리 영화(재)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여름특선드라마 디어 엠		
[12]	00 KBS 중계식 <글로벌아오페라단 비제>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MBC 뉴스 25 35 웰컴 투 스포츠	0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07:30 얼마 까투리
07:45 레인보우 버블잼
08:00 당동당 당동당
08:5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9:05 메탈카드봇S 경찰의 귀환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디비드 붐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PD로그(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사와 곰
15:55 블록S
16:10 당동당 당동당
17:00 페퍼 피그
17:10 얼마 까투리(재)
17:25 레인보우 버블잼(재)
17:40 도레미 프렌즈 쇼츠
17:50 사내수공업 가수 - 디비드 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9일 (음 6월 15일 己卯)

☎ 010-9790-8237



子



丑



寅



卯



辰



巳

36년생 거슬리더라도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48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60년생 불완전하지만 그렇다고 속 태울 정도는 아니로다. 72년생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 될 가능성이 높다. 84년생 자기주관이 있어야만 휘둘리지 않으리라. 96년생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다. 행운의 숫자 : 21, 50

37년생 원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9년생 장담하고 나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이다. 61년생 평소 소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던 바가 흔들릴 수 있는 운세이다. 73년생 상대와 께를 같이하는 것이 현명하다. 85년생 꽤 도난마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97년생 무리 없이 조절할 수도 있음을 잠작하자. 행운의 숫자 : 00, 92

38년생 물심양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50년생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볼 일이다. 62년생 분량을 헤아리는 것보다 질을 따져 붙이 상책이로다. 74년생 불굴의 투지로 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적지아 이를 것이다. 86년생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일이 생긴다. 98년생 모순점을 배제하라. 행운의 숫자 : 76, 95

39년생 유력한 이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51년생 건설한 발상 속에서 복이 피어나는 법이다. 63년생 정성과 습치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리라. 75년생 빈틈없이 준비한 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하는 판국이다. 87년생 상당한 동력이 발생할 것이다. 99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행운의 숫자 : 20, 82

40년생 연속적이라면 중요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52년생 형식과 내용을 두루 살펴야 하느니라. 64년생 일방으로 편중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길목에 이른다. 76년생 선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편이 낫겠다. 88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다. 00년생 의미심장한 날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4, 58

41년생 빈틈없이 처리한다면 판국을 좌우할 만한 위상을 갖추리라. 53년생 작은 배가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만하도다. 65년생 어설피게 하느니 보다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 77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89년생 함께하는 이들과의 인화가 중요하다. 01년생 역효과가 날 운수이다. 행운의 숫자 : 25, 57



午



未



申



酉



戌



亥

42년생 열린 마음으로 처세한다면 환영을 받을 것이다. 54년생 생소하다고 해서 굳이 경계할 이유까지는 없다. 66년생 선례를 참고한다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78년생 단독으로 행하지 말고 길잡이와 함께하도록 하자. 90년생 관리란 잘 한다면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02년생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8, 88

43년생 과신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느니라. 55년생 잔손질이 여러 번 가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67년생 특수한 관제로 전환될 수도 있어서 변화무쌍하다. 79년생 좀 더 크고 먼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울린다. 91년생 이타심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길하다. 03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52

44년생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리라. 56년생 먼저 나서야 쉽게 풀어지느니라. 68년생 상대의 태도에 대한 의중을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80년생 기회가 왔으니 앞뒤 재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92년생 나가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딜 것이다. 04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 행운의 숫자 : 02, 55

45년생 세태에 좌우되지 말고 본래의 뜻대로 하라. 57년생 세밀한 시작으로 정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69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낫다. 81년생 무의미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93년생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5년생 시작됐으면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2, 79

46년생 편견을 버리고 다중적인 의미로 해석해볼 만하다. 58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났을 때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자. 70년생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금과옥조가 될 수도 있다. 82년생 형세를 타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94년생 불상사가 터질 수도 있다. 06년생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라. 행운의 숫자 : 39, 65

47년생 내실을 기해야 후회하지 않게 된다. 59년생 애써 시도한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치게 되리라. 71년생 운용되어야 할 범위를 지나쳤을 때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83년생 다른 것과 비교될 정도이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으리라. 95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열매는 미미하겠다. 07년생 길흉을 달리려는 기로에 서 있다. 행운의 숫자 : 15, 95